

## 문제1

## 창조와 파괴

제시문들을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개의 비교 기준에 따라 나뉘어 진다. 우선 제시문 (가)와 제시문(나),(다)는 창조와 파괴로 인한 사회의 발전 여부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제시문 (가)는 창조와 파괴가 사회를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가)의 세계는 커짐도 작아짐도 없이 고정된 힘이다. 이 사회에서의 창조와 파괴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의 순환을 만들어 낼 뿐이다.

이에 반해 제시문 (나),(다)는 창조와 파괴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본다. (나)의 자본주의는 정체가 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움, 즉 창조와 오래된 것을 부수는 파괴에 의해 발전한다. (라)에서의 계급도 자신들이 억압 받는 사회를 붕괴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를 만들으로써 지배계급으로 우뚝 서게 된다.

두 번째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창조와 파괴의 지속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제시문 (나)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창조와 파괴가 지속된다.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진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창조와 파괴의 과정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는 창조와 파괴의 끝이 있다고 본다. 계급갈등이 첨예한 부르주아 사회에서 사회 발전은 계급 갈등의 끝을 말한다. 자본가 층인 부르주아와 노동자 층인 프롤레타리아로 구성된 사회에서 지배권이 전자로부터 후자로 이동된다는 것은 만인이 지배권을 갖는다는 뜻이며 이는 곧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을 뜻한다.

## 문제 2.

제시문 (라)의 그림1은 1947년에서 1973년 사이의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을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최하위 20%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평균보다 다소 높고 최상위 20%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평균증가율보다 다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는 1974년에서 2004년 사이의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을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이 기간동안에는 소득수준별로 낮은 곳에서 차례대로

10%정도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상위 20%구간에서 30%에 육박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인다. 그림3에는 시간당 생산량과 시간당 실질임금이 나타나있다. 1950년에서 1970년대 중반 사이에는 시간당 생산량이 시간당 실질임금보다 낮거나 같으며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시간당 생산량의 증가폭이 시간당 실질임금의 증가폭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3의 시간당 생산량과 시간당 실질임금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시간당 실질임금의 상승률이 일정한데 비해 시간당 생산량의 증가율이 커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에 그림3의 시간당 생산량의 증가율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림1의 최하위 20%의 경우나 그림2의 최상위 20%의 경우에는 (나)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를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1과 그림2가 해석 가능하다. 그림1의 최하위 20%의 경우에는 부르주아가 완전히 지배권을 가지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부르주아가 지배계급이 되어 지배권을 가짐으로 인해 그림2와 같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의 증가율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상위 20%는 부르주아 위의 부르주아로서 더 많은 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유발해 지배권이 프롤레타리아로 넘어가게 되어 그림2와같은 가계소득 증가율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